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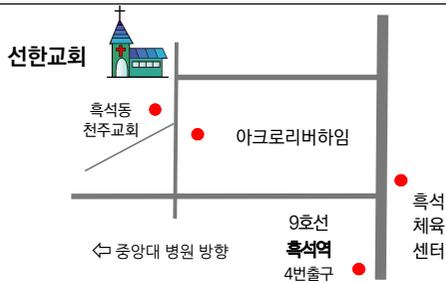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9장 (통일찬송가 44장)
교 독 문	교독문 26 (시편 50편)
찬 양 과 경 배	421장 (통일찬송가 210장)
대 표 기 도	조계승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33 ~ 37절
설 교	맹세하지 말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악한자의 꿈을 주의하라 (잡1:8-19)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2. 개인건강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일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4. 국내선교 및 전교인 수련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선교와 전교인 수련회는 갖지 않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할수 있는 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찬송 :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통 342)

본문 : 역대상 3장 1~9절

말씀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변 나라들을 보더라도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자 전쟁을 잘하는 용병을 자신의 심복으로 고용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나오는 게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한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은 없을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계속적인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을 자로 누구를 세우실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일단 헤브론에서 난 자들은 모두 다윗이 고생할 때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험담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은 인물이 뛰어나고 야망이 큰 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과 나이 차이가 컸고 어른스러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자는 당연히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차지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인품이나 야망, 서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주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자기가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목

맹세하지 말라 (마5:33-37)

서론

예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1. '맹세하지 말라' 의 의미

- (1) 율법의 왜곡: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33절/출20:7,신6:13,레19:12)
- (2) 율법을 주신 분의 가르침: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34절)
- (3) '오직 너희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37절)

본론

2. 교훈

- (1)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 (2) 과장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말하라.
- (3) 거짓된 맹세를 낳는 죄들을 멀리하라.

결론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윤호중 장로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로마서 1:8-17
	<p>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인간에게 참된 의미의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도 바울은 로마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p> <p>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전하면서 자신이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믿음의 안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누구에게나 빛진 자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자신의 사도적 직분에 대한 사명 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악 중에서 부르시어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도로 임명하신 것이 모두 지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의 기도	

찬양과 기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새 365/통 484)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475년 토스카나 지방의 카프레세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 <최후의 심판>, <천지 창조>, <피에타> 등 세계적인 작품을 만든 천재적인 작가였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그의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의 작품 중 <천지 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교황 율리오 2세로부터 성당의 천장을 칠할 권한을 부여받아, 허리를 다치고 시력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며 천장화를 그려 마침내 37세의 나이에 그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르네상스 시대의 꽃을 피운 미켈란젤로의 작품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그리는 모습을 실제로 보지 않고도 어떻게 그의 작품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작품 안에는 작가의 이름(signature)과 그의 손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목도하지 않았더라도 작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어떻게 자연 만물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말씀 나누기	사편 147:1~11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받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역설하나요?(19~20절)
적용하기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이라 착각해 죄의 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본문	로마서 2:12-16
	<p>사도 바울은 악행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를 주실 것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은총을 먼저 받은 만큼 그 책임이 더 큼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환난과 곤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선민인 만큼 오히려 더 큰 징벌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에게도 죄악에 대한 응보로 환난과 곤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죄악을 심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환난과 곤고가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라 해서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용서나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동등한 자격으로 심판받고 또한 구원받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왜 성경의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하는지 설명할수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로마서 1:18-25
	<p>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위해 죄인들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심을 보여 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p> <p>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가 이루신 구속 사역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됩니다.</p> <p>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의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를 배격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주장한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부족한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해주시는다는 확신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로마서 1:26-32
	<p>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줄 만큼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지혜롭던 아담은 죄의 영향으로 미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할 수 없게 된 인간은 미련하여져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p> <p>죄로 인해 미련해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행치 않고 사단의 종이 되어 더럽고 추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살인과 시기와 분쟁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을 골라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정함을 인하여 그들이 죄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p> <p>인간들은 비록 타락하여 영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 깊숙한 곳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인간들의 언어로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 죄악을 행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죄책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로마서 2:1-11
	<p>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그 판단한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율법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자신의 판단한 그 판단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약함을 고백하고 긍휼을 의지할 존재이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는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p> <p>바울은 스스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치실 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창조주요 심판주요 섭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일점 일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p> <p>바울은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멸시한다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길이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은 하나님께 노와 분노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내가 판단한 것과 하나님의 판단이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